

2022년도 생통강좌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 길 위에서 만나는 꾸밈스러운 광주 문화와 역사

2022년 11월 1일 ~ 10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문화탐방----

- 주 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 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 후 원 : 광주광역시



##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
강좌	11.01(화) 15:00	광주 처음 이야기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
	11.03(목) 15:00	광주 나무와 신화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11.08(화) 15:00	전라도 말의 힘	지정남 배우, 방송인
	11.10(목) 15:00	민족문화운동과 시대정신	윤만식 한국민족극협회 고문
답사	11.15(화) 09:00	광주·전남 이야기의 흔적과 뿌리를 찾아서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

## ■ 목 차

---

제1강좌	광주 처음 이야기들 -----	05
제2강좌	광주 나무와 신화 -----	25
제3강좌	전라도 말의 힘 -----	37
제4강좌	민족문화운동과 시대정신 -----	45

---



제1강

# 광주 처음 이야기들

김 경 수

향토지리연구소장



# 광주GwangJu Light 처음(最初)이야기

- 郷土地理研究所
- 金京洙
- [k7209@hanmail.net](mailto:k7209@hanmail.net)
- [geofun@naver.com](mailto:geofun@naver.com)
- 010-7616-7209
- 지역문화교류재단
- 2022년 11월 1일 15시



## 프롤로그

처음 아파트 찾기에서 출발해 목록만 100가지를 넘어갔어요. 습관처럼, 시간 외 줄타기에 장소 점을 찍어가는 함수풀이에 맛이 들어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대상을 소환해 본 것이지요. 매력 광주를 대상으로 '처음'을 찾아 보네요.

석유보일러와 가스는 지금 나의 원동력입니다. 따순 물과 압력밥통은 소박행복이고요. 수불석권(手不釋卷)에서 수불석전(手不釋電)이라 쓴 정다운 노래가네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못 만지고 가신 선배님들께 미안합니다. 우리 광주메트로에서 메뉴를 골라 후배님께 전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지금을 선물한다랄까. 나름 보따리를 풀어보기가 썩스럽네요.

광주 처음 찾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아파트, 광주시민 8할의 보금자리로 대한최고 바벨탑랄까요. (2)임체교차도, 목으로 차오름을 묻고요. (3)상수도, 섬진강물로 너무 싸답니다. (4)은행, 총장로에서 금남로로 갔다가 무진대료요. (5)미인대회, 내가 태어난 해 수영복입고 시작했습니다. (6)노래방, 세기를 이어준 민속터전입니다. (7)지하철, 지금 2호선을 만들고 있지요. (8)조선시대음성, 성안은 광주최초시리즈의 덩어리일까요. (9)집장촌, 향금동 골박스로 전해졌다고요. (10)십자가, 왜세와 외세로 함께 왔다봐요.

최초를 찾아가는 장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업단지, 시내버스, 전기, 발전소, 분뇨·하수종말처리장, 병의원, 감옥·형무소(교도소), 시장, 근대학교, 공항,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동물원, 수영(풀)장, 신문(사), 방송(국), 사회복지(고아원), 기상청, 근대세무기관, 다리, 이동통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영화관), 연탄공장, 주조장, 정미소, 목장, 도살(축)장, 지번지도, 화장, 터널, 무등산정상인공구조물, 지하상가, 고속도로, 시설(비닐)하우스, 석유회사기초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보가 큰 심(힘)이 되겠네요.

그래도 앞으로 여전히 찾아가야 할 대상은 주제만도 1000곳일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예식장, 목욕탕, 사설학원, 백화점, 팔만명행정동, 건설(토건)회사(광복이후), 월간지, 택시(광복이후), 우체국, 서점, 포목(주단)상회, 도시개발제한구역, 향토사단, 스케이트장, 성남공장, 종합터미널, 수리조합, 경찰서, 여성(부녀)회관, 로컬푸드점, 외국인기행(문)과 사진, 경제자유구역, 지명면적기록, 아세아명 업체, 약국(방), 하수도, 철도, 대학, 고교연합고사, 실공장, 양말·메리야스·직물공장, 여관·호텔, 현악기 발굴, 가로명 지정, 교사대량해직, 직업별 호수, 양포르멜화가, 사진관(사장·재료), 수퍼마켓(체인), 음반·악기점, 대지주(한국인), 본관성씨, 광주(시가지)연제물, 상공회의소, 외국인학교(광복이후), 광주영역 이관, 제과·빵, 이발소·미장원(광복이후), 학군단(ROTC), 추가통계, 지정문화재...

원조와 1호점 놀이에 빠질 수 없습니다. 처음이 꼭 첫 사랑일 수도 없고요. 뻔히 본 것도 끄집어내기 힘든게요. 그렇다고 은연중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무심코 얼굴을 그릴 수 없답니다. 각별과 특별함은 늘 보통이요, 지름길이랍니다. 나는 국민학교를 다녔고, 우리 선배는 보통학교, 후배는 초등학교에 갔다께요. 서울과 충청·금남로는 광복 이후고, 산수동과 학강은 그 전이었으께요. 현장을 보고도 맹인이 될 수 있고, 누워서도 드론으로 내려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웃과 다정함이 오늘 나그네 일 수도 있데요. '여시'가 장가들어 둔갑세상을 만들지만, 어디까지나 배경과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뤄진 것은 없습디다. 이것저것 다해보았으면서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글쓰기도 보았답니다.

잘난 사람, 인물 단어로 뽑아 내세우면 땅이 그만큼 많습디다. 묘까지 나열하면 수만 가지를 세울 수 있고요. 미담과 정담이 꾸중으로 돌아올 수도 있더군요. 언저리와 아무개로 비빔밥을 차리면 될 것을 좌표로 알려드립니다. 지어낸 얘기일 수 없어요. 안될 것도 없디지만, 불가능합니다.

곧서바위는 서석·임석·규봉·새인으로 명을 받았네요. 무송과 금호는 결국 영산강 황금물결을 광주로 끌어안고 구석구석에 수를 놓았더군요. 다음 주자가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네요. 시민들께 기대어 수를 차분하게 놓아 볼 요량입니다. **첫꽃No을뽕(Fight)**. [종교, 광주매일신문2021.4.8원고, 2022.7.8고침]



좌:광주광역시청 위:광주읍성 황화루



1872년 광주지도 중 무등산일대



1907년 대한전도 중 전라남북도





### 광주최초1. 아파트

1. 미도아파트 3층 27세대  
계림동505-126번지 1966년
2. 시민아파트 3층 184세대  
광천동650-7번지 1970년
3. 시영아파트 3층 48세대  
학동898번지 1970년
4. 공무원아파트 3.4층 60세대  
산수동463-12번지 1971년
5. 시민아파트 3층 56세대  
주월동389-5번지 1973년



미도아파트(1966.)



산수동 공무원, 학동시민아파트

계림동미도, 광천동아파트  
광천동천주교회  
들불야학  
호반서밋아파트

광주최초 2. 고가도로 순환도로

- 제1순환도로 14km 1985년
- 제2순환도로 38km 2007년
- 제3순환도로 100km 2025년
- ..... 광주광역시역
- 나들목(IC)



1989년 동운, 백운 고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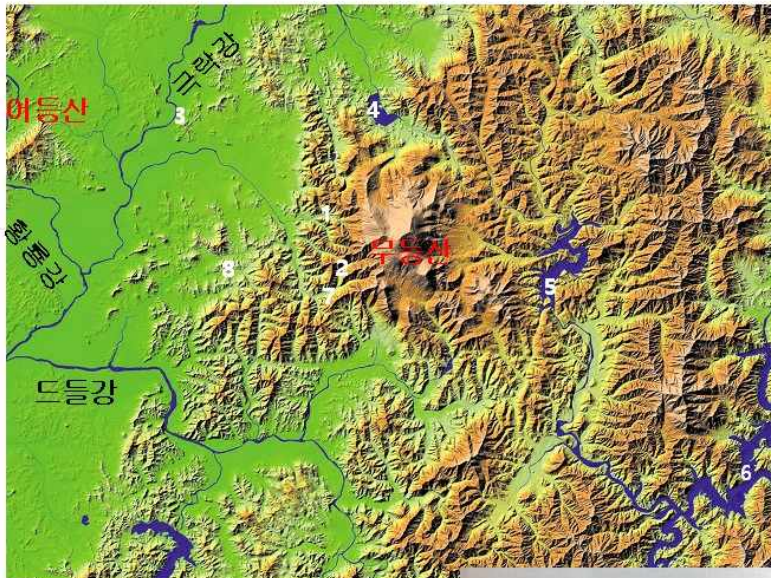
1970년대 5천분의 1지형도

1980년대 1만분의 1지형도

### 광주최초3. 상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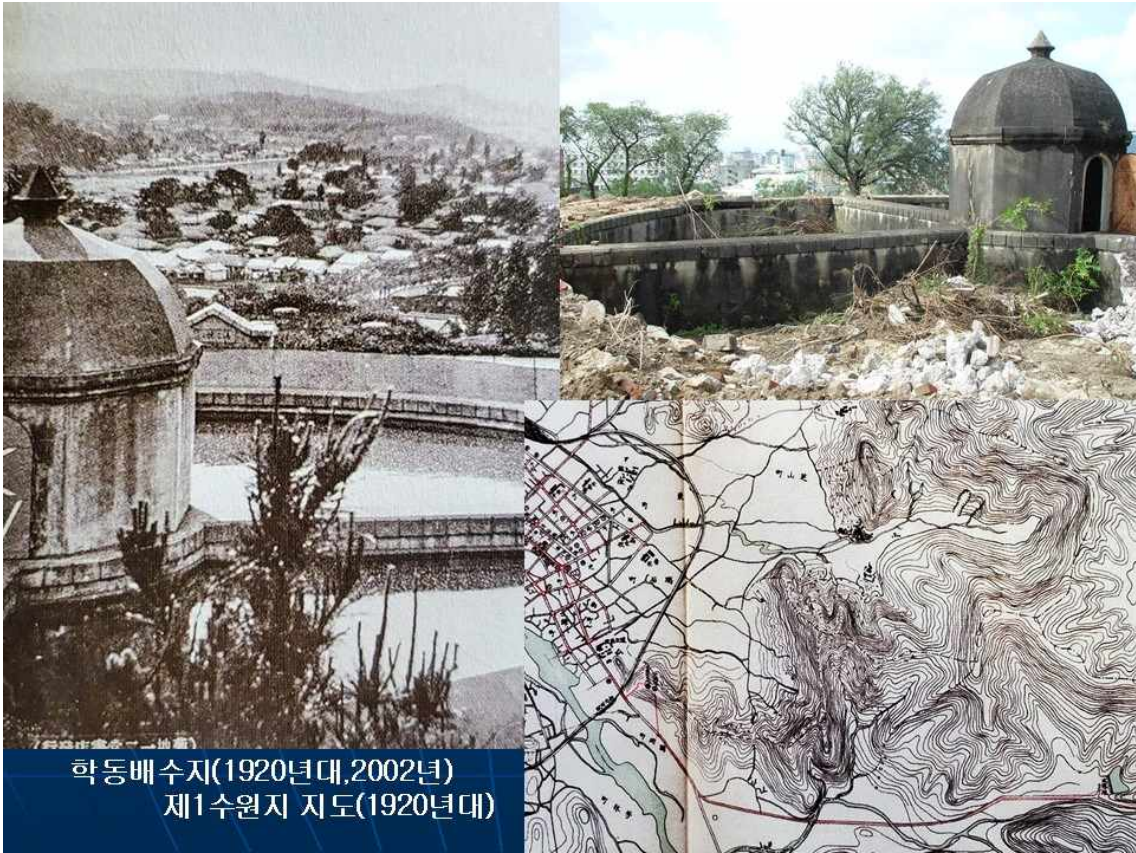
1. 제1수원지(1920년)  
운림동159
2. 제2수원지(1939년)  
용연동495
3. 제3수원지(1957년)  
동림동166
4. 제4수원지(1967년)  
청풍동350
5. 제5수원지 동북호  
(1970년)
6. 제6수원지 주암호  
(1994년)
7. 용연정수장
8. 덕남정수장

지도출처/김현수  
편집/향토지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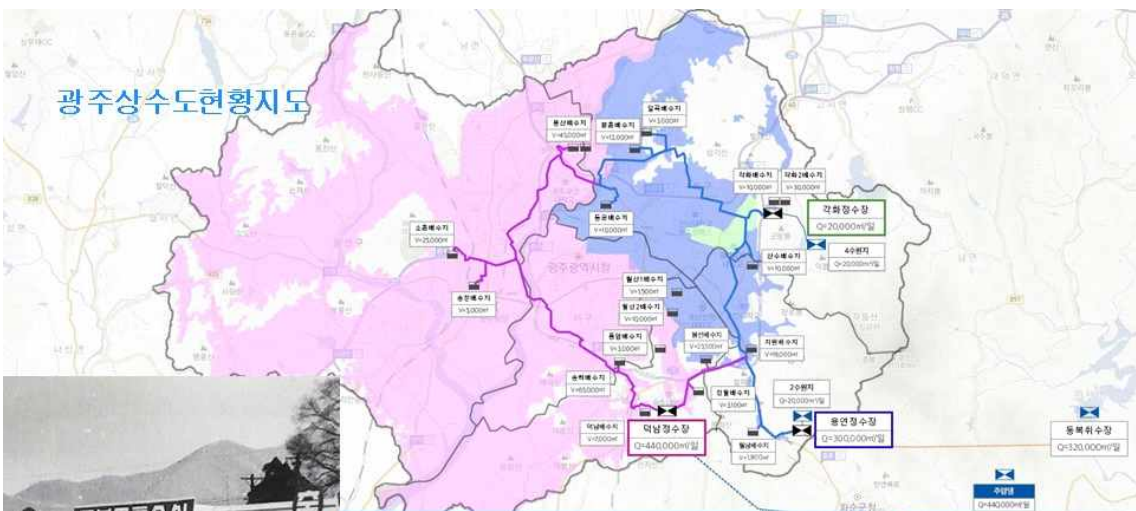


운림동1수원지  
동림동3수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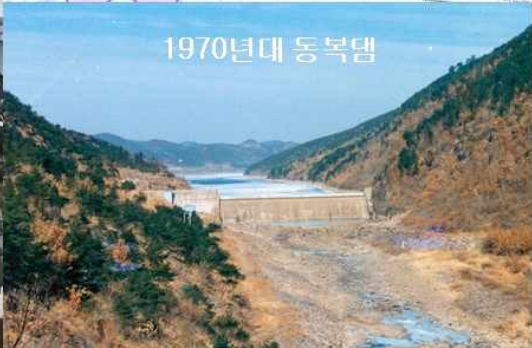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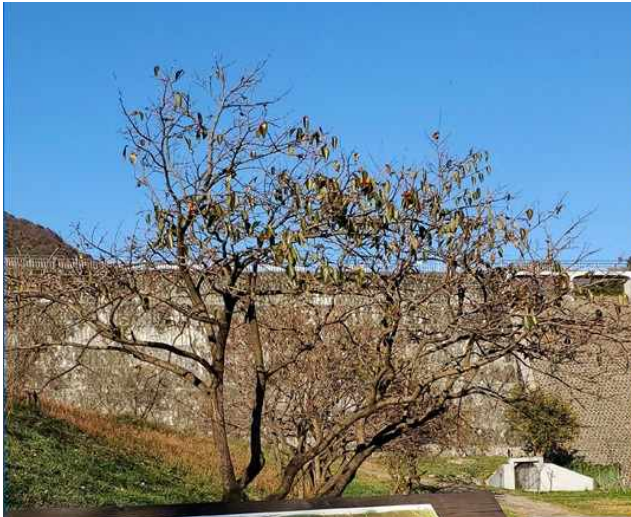


학동배수지(1920년대, 2002년)  
제1수원지 지도(19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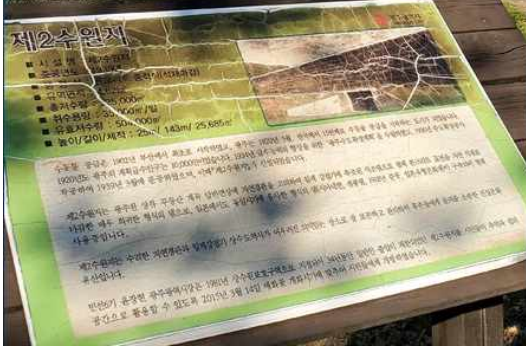


1971.2.17 전남도청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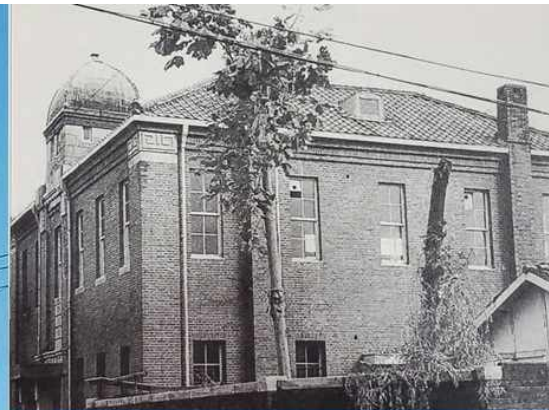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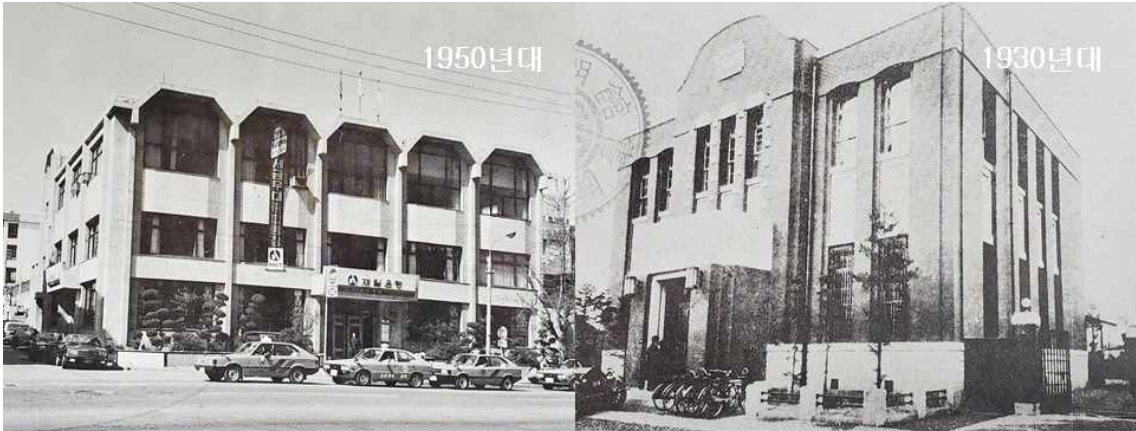
청풍동 제4수원지  
용연동 제2수원지  
덕남동 정수장



### 광주최초4. 은행

1. 총장로2가 18번지  
1906년 농공은행  
1918년 식산은행  
1954년 산업은행
2. 구동 32번지  
1907년 금융조합  
총장로4가 33번지  
1960년 농업은행  
대익동 58번지  
1961년 농업협동조합
3. 총장로3가 6번지  
1920년 호남은행  
1942년 통일은행  
1949년 한국은행  
1969년 광주은행





대의동 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부 건물  
2012년 개원한 광주은행금융박물관





광주읍성 둘레2.5km,면적10만평 광산,대의 궁동,황금,총장금남로1~3가

5월1일, 노동절 오후, 비가 그치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갔다.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시계탑은 오월광주의 시작을 알린다.

41년 전 매캐한 최루탄 연기를 걷기 위해 코를 가렸던 손수건에서, 이제는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범을 막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시민들로 풍경이 바뀌었다.

지금 필자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옛 전남도청 자리는 그전 광주읍성(光州邑城) 관아터 위상 그대로다.1990년대 초 광산동 향토문화진흥원에서 일할 때 신문사 문화부 기사가 물었다. “읍성은 뭐하는 곳이었죠?” 전남도청 주차장터 돌무더기가 화제에 오른 것이다.

성은 흙·돌로 쌓은 방어시설이며, ‘재·жат·작·담·울·장’을 총칭한다. 도랑(隍·垓子)을 파거나 이중벽인 외성, 곽(郭)도 있다. 치소(治所)는 평상시 치안 위주 읍성(Castle)과 위급 때 피신하는 산성(山城Fortress)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광주읍성은 15, 16세기 문헌에 석성(石城)이며 둘레 972보, 8천253척, 높이 9척으로 처음 등장한다. 20세기 초 광주읍성 규모는 둘레 2.5km, 면적은 10만평 정도였다. 지적자료에 관아소유 국유지는 38필지 약 2만8천평으로, 지목은 대의동 54번지 밭 758평 외 모두 대지였다.

민적에는 206호 838명이 보인다. 21세기에 이르러 읍성은 1378년 축성됐을 것으로 보았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기 전 땅속 조사에서 발견된 외편명문이 증거다. 땅이름 알림으로 ‘광주’와 함께 ‘신덕원(新德院)’도 나왔다.성돌 재질은 무등산 일대와 같은 석영안산암이다.해자 폭은 3m고, 소나무 목책주공도 찾아냈다. 지금까지 읍성에 대해 위치가 확인된 곳은 일부다.

땅 논리 뜻에 따라 이름 지어진 사대문은 2층으로 남·북문은 무지개(홍예)식이다. 동문은 전남여고 서남단 체육관과 전남일보 사이 제봉로에 위치했다. 좋은 기운이 깃들었으면 해서 서원문(瑞元門)이라 명했다. 문밖에는 보호동맥(補護東脈)·와주성선(柱成仙)이 새겨진 석장승이 있었다. 현재 전남대학교 박물관 동측에 서있다.

서문 위치는 속칭 '황금동골박스' 사거리다. 하는 일이 잘되라는 뜻을 지닌 광리문(光利門)터 길바닥에는 '오각형' 광주읍성 개략도가 그려져 있다. 1896년 광주에 온 지도군수 오형묵은 유문(西門)으로 총쇄록에 적었다.

남문터는 지하철 문화전당역 6번 출구, 옛 최춘산부인과 근처다. 남쪽을 지킨다는 의미로 진남문(鎭南門)이라 했다. 자연재해와 질병, 왜구 침입 통로이기에 문 앞에서 성황단까지 이른 길에 궁수(弓樹), 홍살문, 천년완골(千年頑骨)진남비를 세웠다.

북문지는 총장로치안센터가 있는 곳이다. 임금이 있는 북쪽을 떠받침에 공북문(拱北門)이다. 가장 중요한 성문으로 신호등 지켜 중앙로를 건너면 총장로4, 5가 혼수의 거리로 이어진다. 광주일고 학생탑 뒷켠 독립로에 '절양루'란 별명을 지닌 또 하나의 북문인 공북루가 있었다.

객사(客舍)는 우체국 남쪽 무등극장 일대 2천700여평 터로 대부분 총장로1가에 해당한다. 양 날개(동·서대청)를 단 본관(중대청) 광산관(光山館), 삼문, 정문 황화루(皇華樓) 건물이 거의 남향으로 자리했다. 광주군청이 한 때 머물렀고, 1920년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가 개교한 곳이다. 지적자료로 보면 총장로1가 25-33번지 1천515평, 총장로1가 11-24번지 561평, 76-78번지 522평, 총장로1가 38번지 58평, 총장로1가 32번지 42평이다.

동헌(東軒)은 금남로1가 상무관과 전남도청민원실 사이에 있었다. 사또 집무실 하모당(何暮堂)은 임진왜란 뒤 다른 건물에 비해 늦게 복구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라남도 관찰사 시절 서석헌 간판을 달고 있었다고 전하며, 선화당이라 칭했다.

객사와 동헌 사이 제금루(製錦樓)가 있던 곳은 전남도청의회 앞 회화나무 북편으로 짐작된다. 음장은 황금동 12번지 960평 '억만고'터로 보인다. 동편 총장로3가 24-38번지를 합해 1906년 북문안교회가 들어섰다.

교회북편 26번지 225평은 1912년 유진벨 소유지로 기록됐고, 38번지는 1967년 이화성 터가 됐다. 창고 서편 황금동 11번지 415평은 1961년 제일극장터가 된다. 감옥(刑獄)터는 황금동 29번지 363평으로 1910년대 동명동 200번지로 이전, 1921년 강남규터가 된다. 최윤상이 1960년대 청명여관이 있었다고 한 곳은 북편 26번지다.

관덕정(觀德亭)은 활터로 현 광주우체국 총장로지점이 있는 총장로2가 16번지 320평터다. 1567년 2층 누각에서 모임 장면을 그린 희경루(喜慶樓)방회도가 동국대에 소장돼 있다. 서남쪽에 향청(鄉廳)이 있었다고 전한다. 황금동 41번지 310평 국유지터로 추정된다.

1985년 여름방학 때 서울대 규장각에 갔다. 영산강 수운(水運)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선배의 안내로 초임 지리교사는 나주·광주 지도를 원판 촬영해 품었다. 지금은 1872년 군현지도로 휴대폰에서도 쉽게 검색된 그림지도다.

나주지도에서 영산포 배(商船)와 광주지도에 네모형 읍성(邑城)내 팔작기와 삼칸 36점을 보고는 이름 모른 화백님께 큰 절을 올렸다. 바로 운명과 같은 회화지도 만남, 학계에서 그 중 으뜸이라는 광주지도. 혼자 보기에 벅차 우리고장에 알렸고,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민속박물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역사'를 더해 광주역시민속박물관으로 명했다. 2층에 광주읍성을 250분의 1로 축소한 모형도를 게시해 놓았다. 아직 밝히지 못한 곳은 뒷날 보충한다고 도록에 쓰여 있다.



미국인 조지포크는 1884년 11월17일 오후 시장을 거쳐 경양역-평교점에 도착했다. 동편 잣고개 일대 성벽을 보았다고 기행문에 적고 그렸다. 고읍(古邑)과 둘레 10km 남짓 무진도독고성(武珍都督古城)은 지도와 지리지에 전하지만, 점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평지성(平地城) 광주읍성, 이전 고읍은 평산성(平山城)이나 산지성(山地城)이었을 것이다. 2015년 국립중앙도서관이 펴낸 '고지도를 통해서 본 전라도지명 연구'에서 이기봉 박사는 무진고성이라 칭한 잣고개 일대를 고읍터로 보면서 "무진도독고성은 광주읍성에서 볼 때 동북쪽에 있다. 옛날에는 서북·북·동북방향을 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석을 덧붙였다.

충장동사무소 관할 법정동 충장·금남로1-3가, 광산·대의·궁·황금동이 성안터다. 광주 최고 땅값(공시지가) 위치는 지금도 옛 나라세적이 있던 유프러스터로 평당 4천363만원이다. 어디나 중심지는 관청이 있는 곳이다. 광주도에외없이 예나 지금이나 '최(最)'자가 따르는 곳은 행정기능 언저리다. 광주읍성터 안, 이른바 '성내면(城內面)'은 광주최초시리즈당어리다. 광주 성(城)을 성(兄)하면서 성(聲)을 내 불러본다. [즐고, 광주매일신문 2021.5.13]



광주, 의정면에서 촬영한 주·동쪽2곳 내성터 모습. 미이진, 내성면, 안쪽에는 시전전경에 새겨놓은 것과 같이 조지포크가 영기흥기 무어 있는 것. 더에는 아무 것도 없다. (시전출처: 고도본지도(수동문자강), 1908년, 조선기행록 중에서, 푸른길 287쪽)



1872년 규장각(奎1047)전라좌도 광주지도 중읍성, 성내면 건물명으로 서원문, 광리문, 잔남문, 공북문, 객사, 향회루, 공수, 계금루, 등현 내아, 국청, 삼문, 주사, 혼도청, 군청, 형청, 작청, 장방, 선환청, 관덕청, 근기, 화약고, 부관청, 전제청, 창고, 수상청, 기고청, 천양관, 좌기청, 형유, 봉공청, 장청, 교방청이 모두 3간팔자외집으로 그려져 있다.



【희경루, 영하도 1544년 증경시 희경루가 생략됨을 1557년 그린 것이다. 희경루는 7번 고경사를 거듭 짓었다. 후는 무진년에서 광주읍으로 복구된 1451년 낙성. 오른쪽에 칼타기보안대(동구)】



전라도 정도(正道)천년을 기념해 다시 지어진 조선 시대 목조건축물 희경루(喜慶樓)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실과 재건을 반복한 희경루 중건이 마무리 되면 역사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1일 “오는 23일 오전 10시 0분 남구 사직동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상량 고유제’를 연다”고 밝혔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 건축물 골격을 완성하는 상량(上樑)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희경루는 1451년 지어졌으며 소실과 재건을 반복해 온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이다. 조선 문종 당시 신숙주가 쓴 희경루기 등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1533년 화재로 소실됐던 희경루는 1534년 광주수령으로 무임한 신한이 다시 지었고, 1866년 중수된 후 일제강점기 시절 멸실된 광주 음성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인근에 있었지만 이번에 광주공원으로 옮기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광주공원에 새롭게 희경루를 건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희경루 건축은 복원이 아닌 옛 문헌과 그림에 근거, 원래의 위치 대신 조망 경관이 좋은 다른 장소에 새롭게 건축하는 ‘중건(重建)’으로 불린다.

희경루 중건은 지난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승격 지정된 희경루 방화도와 희경루기 등 역사 자료들을 통해 옛 모습을 고증했다. 기문에는 희경루에 대해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 길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담을 굽어보면, 북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동쪽에는 사장을 만들어 관덕의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서야 비로소 올라 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는 글이 남아 있다.

광주시는 조선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화도’(榜畵圖)를 바탕으로 옛 모습을 되살렸다. 전라도 정도(1018년) 천년을 기념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소 지연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55억원 등 60억원이 들어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체 공사는 80%가량 진행돼 10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원 광한루, 진주 축서루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누각이자 문화자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광주매일신문2022.6.21】



전라도 정도(定道)천년을 기념해 다시 지어진 조선 시대 목조건축물 희경루(喜慶樓)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실과 재건을 반복한 희경루 중건이 마무리 되면 역사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1일 "오는 23일 오전 10시 0분 남구 사직동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상량 고유제'를 연다"고 밝혔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 건축물 골격을 완성하는 상량(上樑)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희경루는 1451년 지어졌으며 소실과 재건을 반복해 온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이다. 조선 문종 당시 신숙주가 쓴 희경루기 등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1533년 화재로 소실됐던 희경루는 1534년 '광주수영'으로 무임한 신한이 다시 지었고, 1866년 중수된 후 일제강점기 시절 멸실된 광주 음성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인근에 있었지만 이번에 광주공원으로 옮기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광주공원에 새롭게 희경루를 건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희경루 건축은 복원이 아닌 옛 문헌과 그림에 근거, 원래의 위치 대신 조망 경관이 좋은 다른 장소에 새롭게 건축하는 '중건(重建)'으로 불린다.

희경루 중건은 지난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승격 지정된 희경루 방회도와 희경루기 등 역사 자료들을 통해 옛 모습을 고증했다. 기둥에는 희경루에 대해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 길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담을 굽어보면, 북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동쪽에는 사장을 만들어 관덕의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서야 비로소 올라 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는 글이 남아 있다.

광주시는 조선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회도'(榜會圖)를 바탕으로 옛 모습을 되살렸다. 전라도 정도(1018년) 천년을 기념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소 지연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55억원 등 60억원이 들어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체 공사는 80%가량 진행돼 10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원 광한루, 진주 축석루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누각이자 문화자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광주매일신문2022.6.21】



광주읍성유허(2006,2021 펠자촬영)





광주읍성 동헌터와 복문지



1682년 동여비고 중 광주부근



1960년 윤용대(광주전남시진사1996)

1900년 광주 중심지5만분의 1 지형도

##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

### 특별 인터뷰

#### 향토지리학자 김경수 박사

무엇이든 최고로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김경수 박사의座右銘이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향토지리학 연구에 몰두해 왔으며, 특히 광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는 “향토지리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는 “향토지리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의 저서 '향토지리학' (Local Geography)의 표지. 이 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김경수 박사...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 살의 근원이 되는 뿌리 ‘갈림’부터 현재 시절까지 체계적인 조사 필요 ‘별로, 눈으로...주제-장소별 x y축 정렬하는 향토지리학 연구’ ‘외길 인생’ ‘미디어시대’ 질적 산재된 향토자료 디지털화...값진 기록으로 남겨야

김경수 박사는 “향토지리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는 “향토지리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의 연구실. 책架上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책들이 가득 차 있다.

### ▲향토 문화의 중요성

김경수 박사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김경수 박사는 “향토문화는 현재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향토문화는 과거를 알기 위한 뿌리...온고지신 되새겨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대의동2번지  
2022.10.17

감사합니다

광주매일신문  
2021.1.22

## 김경수 광주땅최초시리즈

번호	제목	연도	현 위치, 명칭	발표일
0	프롤로그	인터뷰(1.22)김다이	온고지신(시공함수풀이,연역귀납)	2021.4.9
1	아파트	1966	계림동505-126,미도아파트	4.14
2	입체고가 ·순환도로	1973·1989.6·11	운암동99동운고가, 백운광장	4.22
3	상수도	1920	운림동159,제1수원지	4.29
4	은행	1906	충장로2가18,광주농공은행	5.6
5	광주읍성	1378	금남충장동일대10만평	5.13
6	시장	1789	충장로3가15금남로3가74	5.27
7	학교	1488·1896	구동22향교,구동32사마재	6.3
8	대학	1946	학동5광주의과대,서석동조선대	6.17
9	군대	1417까지20년	송정동253번지일대 고내상지	6.23
10	병·의원	1905	효천면양림리232제중원	7.1
11	공업단지	1966	내방·화정동일대40만평	7.8
12	시내버스	1954	학동~임동 종연방직공장	7.15
13	철도	1914	송정동949·1003호남선	7.22
14	수영장	1938	임동104-18종연방직북편서방천	8.5
15	교도소	1908	황금동29,원촌리727동명동200	8.12
16	도서관	1926,1962	황금동12,광산동1	8.19
17	로컬푸드	2013	매곡동214-19,두암동568-5	8.26
18	박물관	1957	용봉동 전남대학교 금호각1층	9.2
19	터널	1971	선교동 산188너리재	9.9
20	다리	1907	사동37운교,구동31호남동10광주교	9.16
21	미술관	1974	금남로1가1전일빌딩2층	9.23
22	기념관	1914	양림동67오웬기념관	9.20
23	복지시설	1928,1930	금동68고아원1930대인동136공제회	10.7
24	전기시설	1917	수기동43광주전등주식회사	10.14
25	우편통신	1897,1906,1913	금동177광주우체사,황금동63	10.21
26	세무기관	1907	동광산정9광산동, 전남도청재무감독국	10.28
27	소방기관	1907,1915,1932	광주재향군인분회소방조,금남2가35	11.4
28	경찰기관	1896	금남로2가35전라남도경무서(훈령청)	11.11
29	행정기관	1896,(?~1922)	전남도관찰부,광주군청총장1가25	11.18
30	법원·검찰청	1896,1909,1912	전남재판소,광주지방법판소,금남3가1	11.26
31	영화·극장	1908,1909	황금동19고사옥,충장3가33양명사	12.2
32	시외고속버스	1912,1945	광목간, 대인동31·190전남여객	12.9
33	공원	1913	구동21구강공원	12.17
34	방송국	1939	충장로3가21조선방송협회광주출장소	12.23
35	지역신문사	1908	광주일보1909년일간	12.29
36	인구통계	1424~54	세종실록지리지무진군860호4,182명	2022.1.6
37	기명기록	891	학선593개선사지석등,덕의동석보평	1.13
38	가마窯	기원2~1C	신창동632	1.20
39	문화재	1962	중흥산성쌍사자석등,동·서오층석탑	1.27
40	석기시대	구석기,1993	산월동848조대박물관	2.3

41	의회(원)	1952	광산동66흥학관	2.17
42	그린벨트	1973	광주권554.69km <sup>2</sup> 담양장성나주화순	3.3
43	종교시설	860,1906,1930,1952	운림56,충장3가24·26,북동33,궁동40	3.17
44	기상·기후	1938,1916	치평리 군비행장, 임동광주종묘장	4.1
45	1부 에필로그		최명진 기자	4.15
46	비행장	1937 ~ 1939, 1962~1966	상무지구 치평동 110ha, 송정리 528ha	6.15
47	저수지와 보	16C보지지금물제지 棗灘湫	서방풍향574(계림동505)번지 65,418평 경양호	6.24
48	하수도	1920년대	광주읍성배수로 대인동 2.5km	7.1
49	쓰레기장	1937	양동 71~76번지 청소사업소554평	7.8
50	축산기관	1913 1937	양동 12번지 월산동 194·195-2번지	7.15
51	농산기관과 대지주	1909	효천면 양림리 266·267번지 광주종묘장	7.22
52	분수대	1969	도청앞 분수대	8.5
53	호텔	1950년대 말	광산관, 동운여관, 금곡동 산3-1번지	8.11
54	학군단	1961	전남대105, 조선대118	8.19
55	백화점	1930년대 1977	동아부인상회 화니백화점	8.26
56	방앗간	1915	수기동 하산정미소	9.2
57	술공장	1907 1919	충장로 4가 28·29번지 송전주조장 광주주조	9.8
58	습지보호구역	2004	용강동 담양습지 극락강	9.16
59	서점	1920	황금동 51번지 菊池서점	9.23
60	광주시가지연재물	1963 1969	광주지붕밑(전남일보) 광주60년사 (최윤상)	9.30
61	프로야구	1982	해태타이거즈 박건배 유촌동64번지	10.7
62	예식장	1950년대	광산동 91번지 ※충장로3가10번지 송도상회	10.14
63	여행업체	1963	대인동 31-2번지 국제관광공사 대한여행사	10.21
64	사진(업)	1901. 1910년대	고도분지로 공복루에서 북문쪽사진, 浦川	10.28

최초=최신(현재가 선물이다). 시간은 조급함에 증발하고, 공간은 멈춤에 감춘다.





## 제2강

# 광주 나무와 신화

엄 수 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광주 나무와 신화

엄 수 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i. 들어가는 말

세계 어느 민족이나 나라의 고유한 토착신앙인 민간신앙이 있다. 초인간적인 힘인 자연에 대한 공포심과 외경심을 극복하고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원시적 종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 민간에 의해 전승되고 승앙 되어 온 민간신앙은 어떠한 종교보다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신앙에서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당산제, 장승, 서낭당, 기우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당산제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토착신앙으로 고대부족국가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신성, 통합, 정치, 축제, 예술 등 다양한 기능은 촌락공동체 장구한 역사적 생활을 유지 강화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한반도를 영원한 식민지화하기 위해 자료로 이용코자 각 지역 행정관서 도움을 받아 전국적으로 당산제를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화의 중대함을 깨달은 민족사학자들에 의해 민속문화 전반과 함께 마을제사도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 도시화에 의해 그 맥이 끊기기도 하고 재연되기도 하고 있다.

마을신앙 구심체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좌정해있거나 강림한다고 믿는 일정한 신성한 지역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신앙의례를 들 수 있다. 남도 지역 제당 신체 상징물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중에 나무가 있는데 당산나무라 부른다.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인 당산나무는 종류가 다양하다. 주로 느티나무가 많고 팽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동백나무 등이 있다. 나무, 숲, 당집, 장승, 조탑, 솟대, 입석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장승, 조탑, 솟대, 입석은 대개 동네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벽사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아랫당이나 거릿제당처럼 당산제를 지낼 때 하의 신으로 제를 받는다.

마을나무 중에는 당산나무와 동구나무가 있다.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켜 주는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나무이다. 동구나무는 정자나무, 사장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합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동구나무가 있는 곳을 사장 터라 부르기도 한다. 사

장 터에는 정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자는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방이 없이 마루로만 구성된, 작은 규모의 초가지붕 건물로 전라도 지방에 집중해 있다. 지역에 따라 분포의 정도가 다르며, 명칭도 모정, 우산각, 동각, 시정, 농정, 농청, 양정(涼亭)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여름철 마을주민의 휴식처로 마을 공유재산이다. 남자만이 사용하는 남성 집단의 전유물이다. 남성 중에서도 일하는 일꾼이 주로 이용한다. 도작농업지대에 발달하였고, 머슴제도가 성행한 곳에 많다. 마을의 촌락공동체적 성격 잔존과도 관계가 있다.

광주광역시 당산나무와 동구나무 몇 곳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면상 문제로 여러 곳을 다룰 수 없어 아쉽다. 대신 강좌에서 더 많은 나무를 만나보기로 한다.

## ii. 광주광역시 당산나무와 동구나무

### 1. 남구 노대마을 당산

#### 1) 마을개관

노대마을은 광목관 도로에서 광주대학교 쪽 동남쪽 2km 지점에 있는 마을로 1990년까지는 오지마을이었다. 마을 동쪽 분적산(해발 412,5m)과 남서쪽 정광산(해발 353,8m. 남구 양과동, 나주시 남평면, 화순군 화순읍과의 경계를 이루는 산) 사이 협곡에 있는 이 마을은 칠구재(마을 동남향)를 통해 사진가들 명소가 되어있는 화순읍 새량지와 연결되어 있다. 칠구재는 지원동 너릿재와 함께 화순과 광주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노대마을은 노대실 또는 노대굴이라고도 한다. 노대는 큰형님 또는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이다. 노대라고 불린 유래는 김해김씨, 함안윤씨, 밀양박씨가 화목하게 살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노대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노대마을은 배 형국으로 마을 중앙에 샘을 파지 않는다. 중앙에 샘을 파는 것은 배가 구멍을 내는 것과 같으므로 폐촌이 된다고 믿고 있다.

노대마을은 1955년 7월 1일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농경지가 협소하여 나무를 양동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의해 시민군 버스가 총탄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 2) 노대마을 당산제

노대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를 당산제라 한다. 예전에는 제사를 안당산과 바깥당산에서 모셨다. 안당산은 철룡당산이라 하며 마을 중앙 골목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는 분적산을 향해 지내며 신격은 산신이다. 신



노대동 당산제

체는 없었고 편편하고 넓은 돌이 있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길을 넓히면서 단을 없애고 바깥당산과 합산했다.

바깥당산은 마을 도로변 왼쪽에 자리 잡고 있다. 명칭은 당산할머니 또는 당산할아버지라고 중첩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할머니당산이라고 한다. 신체는 300년

넘은 느티나무이다. 당산나무에서 4m 정도 떨어진 곳에 70m 크기 선바위가 있다. 선바위 유래는 힘이 장사였던 창조할아버지가 분적산 근처에서 영험해 보이는 선바위를 발견하고 둘러업고 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선바위 앞에 편편한 돌로 된 단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멘트로 단을 만들었다. 바깥당산 제물은 선바위 앞에서 진설한다.

노대마을은 도심 속의 농촌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고 노령화되어 있다. 그러나 당산제 때는 남녀노소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도심에 사는 자녀들도 근거리이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당산제를 참여한다. 당산제는 제의적 성격과 동시에 축제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

### 3) 영험담

예전에 마을에 소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밤새도록 당산나무 주위만 맴돌다 아침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 중에 당산제를 지내는 시기에 자기 밭에 합수를(화장실 거름) 내다가 그 자리에서 화를 입었다는 사람이 있다. 당산제 모시는 날 당신을 믿지 않는 여인이 영덩이로 절을 해서 지골을 맞아 죽었다. 염 씨라는 사람은 화주를 하면서 말을 하고 다녀 병어리가 되어 죽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마을에 당산나무를 300원에 팔았는데 당산나무를 베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당산나무를 베어 가지 못해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당신이 크게 노해서 벌을 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당산신에 대해 더욱 두려움과 외경심을 갖게 되었다.

진화주 말은 분의 경험담은 질부가 아퍼서 초아흐렛날 굿을 했는데 바깥양반이 굿 끝머리에 허수아비를 태웠다. 10일 샘을 푸러 갔는데 허리가 몹시

아팠다. 그래서 고통을 겪던 중 13일에 꿈에 현몽하여 이웃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와서 “괘씸한 것들이 어른 모셔놓고 햇대에 피바지를 걸어 놓았다” 하면서 참기름을 내려 음식에 뿌리고 다녔다. 다음 날(14일) 마당에 밥을 차려놓고 무조건 당할아버지, 할머니께 빌었더니 바깥양반의 허리가 깨끗이 나왔다.

이렇게 영험이 있는 신이 깃든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며 어린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 또한 하지 못 하게 한다.

## 2. 원산동 괘고정수

### 1) 마을개관

원산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속한 동이다.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대촌동 담당 아래 있다. 원산마을에 석관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 후기에 광주목 유등곡면 지역으로 원하촌이 있었다. 구한말에 광주군 유등곡면의 만산리, 내동리, 원촌리였다.

1914년 대촌면 구소리, 1957년 광주시 원산동, 1963년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 1995년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이 되었다. 문화재로는 제봉문집목판(광주유형문화재 20), 포충사(광주기념물 7), 괘고정수(광주기념물 24), 필문이선재부조묘(광주민속자료 7), 임암동과 원산동 선사주거지, 석곽묘(광주문화재자료 18) 등이 있다. 유적으로는 모정, 고씨삼강문, 황산사 등이 있는데 고씨삼강문은 의병장 고경명 일가 정문(旌門)이다. 사찰로는 옥천사가 있다.

### 2) 괘고정과 광산이씨

남구 원산동 마살메 어구에 한쪽이 썩은 조선 버드나무가 있고 바로 옆에 느티나무가 서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를 괘고류 또는 괘고정이라 부르고 있다. 이 마살메(만산동)마을은 광산이씨가 살고 있으며 광산이씨 선조인 필문 이선제 부조묘가 있는 곳이다.

만산동을 일명 만호동이라 부르는데 그 연유는 이장동에서 살았던 광산이씨인 일영이 만산동으로 이주해 들어와 살다가 죽자 그 아들 선제가 만산동 뒷산에 묘를 쓰고 시묘를 했다. 다시 선제가 죽은 뒤 이곳에 묘를 쓰고 과거에 합격한 5형제가 시묘를 할 때 많은 선비와 관리가 출입했기 때문에 만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괘고류는 광산이씨인 선제가 심은 나무로 그가 죽기 전에 예언했다는 말이 전설로 전해온다.

선제가 말하기를 “이 나무는 내 자손들의 성쇠와 그 수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나무는 그의 5대손 동암 이발 형제 일가들이 정여립의 사건에

몰려 장살을 당한 뒤 말라 죽었다가 3백여 년이 지나 다시 살아났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그 내용은 이 나무가 심어진 후 선제 아들 손자 대대로 벼슬에 올라 이곳에 있는 선제 부조묘에 고유를 드리기 위해 모이면 이 나무에 북을 걸고 삼현육각으로 축하연을 베풀곤 했다. 그 연유로 이 나무를 괘고정(괘고류)이라 하였는데, 5대손이 뿔뿔이 흩어진 뒤부터 말라 죽이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가지는 모두 곰삭아 없어졌으나 죽은 원목만은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었다 한다.

숙종 때에 이르러 동암과 강산이씨 죄가 신원(주소, 본적, 신분, 직업, 품행 따위의, 개인이 자라 온 과정과 관련되는 자료)이 되고 그 자손 일부가 이곳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여기서 살게 된 이상엽이 이 나무에 얽힌 광산이씨 옛 일화를 듣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중 그의 아들 주신을 시켜 이 나무를 불태워 그 흔적을 없애버리도록 했다. 아버지 명을 받은 주신은 머슴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가 가운데만 썩어 보기 흉하게 서 있는 이 나무 가운데다 마른 나무를 가득 채우고 불을 질러 3일간을 태웠으나 이 나무는 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도끼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고목을 태우는데 실패한 주신은 아버지께 도저히 괘고정 썩은 등치가 불에 타지 않음을 말하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시며 “그 썩은 나무 사이를 파고 양자나무를 심어 보아라” 했다. 5·18민주광장 회화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주신은 그 말을 듣고 정자나무로 알맞은 느티나무 묘목을 구해 썩은 괘고정 사이에 심었다. 이 양자 나무가 30년간 자라자 이변이 일어났다. 3백여 년 전에 죽어 고목 뭉치만 남아 3일간 불을 먹은 이 나무 한쪽에서 새움이 트기 시작했다. 지금 조선버드나무는 서북편에 두 가지가 뻗어 높이 20m가량 고목이 되어있으며, 그 옆에 양자나무인 느티나무도 나란히 자라고 있다.

### 3) 필문 이선제 부조묘

광주시 민속자료 제7호인 필문이선제부조묘는 남구 원산동 만산마을에 있다. 부조묘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기리어 신주를 영원히 제사 지내도록 건립한 사당이다. 필문 선생 업적을 기리고 공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한 필문이선제부조묘는 포충사 뒤쪽 산기슭에 있으나 원래 위치에서 50여 미터 왼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필문이선제부조묘 뒷산 언덕에 필문 묘와 비가 있고 이곳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그의 신도비가 있다. 마을 앞에는 필문이 심은 괘고정수라 불리는 수령 600년 된 왕버들 노거수가 있어 유서 깊은 이곳 역사를 상상케 한

다. 시 기념물 24호로 지정된 쾌고정수는 이선제 선생이 심었다고 한다. 선생의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이 나무에 북을 걸어 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여 쾌고정수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필문은 1390년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에서 태어났다. 필문 휘는 선제, 자는 가부이며 필문은 그의 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양촌 권근 휘하에서 수학했고, 1411년 사마시에 합격해 관직에 30년 동안 몸담았다고 한다.

광주에 필문로라는 거리가 있다. 이선제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88년 필문로가 제정되었다. 당시 광주가 무진군으로 강등된 것을 광주목으로 승격하는데 공을 세웠고, 지금의 일고 자리에 희경루를 짓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인재 발굴을 위해 젊은 선비 30인을 뽑아 강학의 학풍을 일으켰으며 “광주향약”이라 불리는 광주 최초 실질적인 향약도 실시했던 분이다. 학문에 조예가 깊어 태종실록 편찬과 고려사 개찬에 4번이나 참가했으며 각종 경찬소문(慶讚疏文)을 짓기도 했다.

필문은 1453년에 서울에서 돌아가신 후 이듬해 봄 상여로 광주 만산동으로 옮겨 할아버지 무덤 옆에 안치했다. 그러나 묘지명이 도굴범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려다 공항에서 문화재 검사에 발각되어 생졸 연대가 밝혀졌다. 필문은 판사를 지낸 선윤지 여식을 아내로 삼아 5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이시원과 5남 이형원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면 이후 필문가문은 5대손인 이발, 이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과거급제자를 내며 명문 가문으로 이름을 떨쳤다. 필문 저술은 매우 많았으나 기축옥사로 소실되고 남아서 전하는 것이 없다. 후대에 만들어진 수암지와 왕조실록에 드물게 자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 4) 쾌고정수와 버드나무

버드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자란다는 뜻으로 왕버들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개울가, 호수가 등 유난히 물이 많은 곳에 있다. 어르신들은 왕버들나무가 있는 곳의 샘물은 그냥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마셨다고 한다. 버드나무 뿌리는 무수히 많은 잔털 뿌리로 되어있어 이것들이 물속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작용 역할을 해물이 맑기 때문이다. 줄기는 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히포크라테스는 치통이 심할 때 가지를 물리게 하는 처방을 했다 한다.

이순신 장군은 무과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졌을 때 버드나무 가지로 부목을 한 다음 다시 말을 타고 시험을 계속해 급제했다. 버드나무는 세계적인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주원료이기도 하다.



이 왕버들나무는 필문 이선제(1389~1454)가 심으면서 이 나무가 죽으면 가문 또한 쇠락해지니 관리를 잘하라는 당부의 말과 예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이선제의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이 나무에 급제자의 이름과 북을 걸어 놓고 축하 잔치를 열었기에 괘고정(掛敲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589년 이선제의 5대손인 이발(李潑)이 기축옥사로 일컬어지는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인 송강 정철에게 모진 고문을 받아 본인은 물론 어머니와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자 왕버들나무가 말라죽기 시작했다고 한다. 후대에 이발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게 되자(인조 2년 1624년 복관, 숙종 20년 1694년 이발은 이조참의, 이길은 부제학으로 추증됨) 죽은 지 100여 년을 넘긴 왕버들나무에서 새로 잎이 나와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 사는 광산이씨 후손들은 송강 정철을 빗대 깎두기를 담그는 무를 썰 때 '송강송강' 썰고, 생채를 썰 때도 '철철철' 썰라는 표현을 한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어 광산이씨는 연일 정씨와 혼사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

### 3. 칠석동 칠석은행나무

#### 1) 마을 개관

칠석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동이다.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대촌동 담당이다. 칠석마을에 선사시대 묘제인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광주목 서면 담석리, 구한 말에는 광주군 담석면, 1914년 대촌면 담석리, 1957년 광주시 담석동, 1963년 광산군 대촌면 담석리, 1988년 광주직할시 광산구 대촌출장소 관할 담석동, 1995년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이 되었다.

무형문화재로는 고싸움놀이(무형문화재 33호)가 있다. 유적으로는 칠석마을 고인돌이 있는데 선사시대 이천여씨 선산 구릉지대에 6기, 문흥식 씨 집 옆에 1기, 집 뒤 대나무숲에 2기 등 총 9기가 있다. 부용정은 1500년, 조선 세종 때 전라감사를 지냈던 김문발 별장이다. 예부터 서낭나무로 추대되어 마을 사람들 보호를 받고 있는 은행나무(기념물 10호)도 있다.

칠석동은 광주에서 대촌출장소를 지나 남평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다. 구한 말까지 단일 면인 칠석면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1914년 대촌면에 통합되었고 1988년 5월 1일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마을 유래는 마을에 검은 돌이 많아 칠석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땅을 한자만 파보면 검은 돌이 나온다고 한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안길을 경계로 상동과 하동로 구분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칠석동은 와우형국이어서 황소가 뛰어다니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마을에 해가 있을 것이라 하여 소의 입에 해당하는 아랫마을 입구에 구시(구유)를 상징하는 연못(현재는 매워져 없어졌음)을 파 놓았고 고삐는 당산인 은행나무(시 지정기념물 10호)에 묶어 놓았으며 꼬리 부분은 돌로 눌러 일어나지 못 하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칠석동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마을의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서 비롯되었다 한다. 이 놀이는 1969년 제1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널리 알려지게 되어 197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마을 앞에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전승하고 있다.

당산제는 워낙 알려져 이 글에서는 은행나무 영험담으로 대신한다.

## 2) 은행나무 영험담

마을사람들은 할머니당산이 특히 영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수십 년 전 마을사람 3인이 신은 없다고 하면서 할머니당산에 빨강, 노랑, 검정 3색의 잉크를 뿌렸다고 한다. 이들 중 붉은 잉크를 뿌린 사람은 자기 집에 불이 나 죽었고, 노랑 잉크를 뿌린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검정 잉크를 뿌린 사람은 목수였는데 도끼로 발등을 찍어 불구자가 되었다고 한다.



칠석동은행나무

어린이 3명이 당산에 똥을 누고 나무를 타고 놀다가 가지가 부러져 2명이 즉사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정성 들여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 (1) 도둑 잡은 은행나무

웃돌(칠석)마을은 마을형상이 풍수지리설에 소형국으로 터가 세기 때문에

그 터를 누르기 위해서 매년 정월에 당산제를 모시고 마당밧이 굽을 치며 고싸움놀이를 해왔다. 이 마을 당산제는 마을 위 할아버지 당인 소나무와 마을앞 은행나무인 할머니당에서 지내는데, 할아버지 당은 술도 안 들고 비린 것도 먹지 않아 무시너물과 미역국, 냉수로만 제사를 모신다. 할머니 담은 술, 고기를 다 잘 먹기 때문에 잘 장만하여 정성을 드려 지낸다.

아이들이 당산나무에 올라가 가지위에 앉아 똥을 싸다 가지가 부러져 2명이 죽고, 한 명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또 옛날에는 마을에서 도적질을 해서 당산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빠져나가 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 까지 당산나무를 돌다 날이 밝아 도적이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

## (2) 농바우와 나주처녀

농바우는 고아산구 칠석동 동편 죽령산 중턱에 있는 바우로 칠석마을에서 보면 중이 바람을 직 춤을 추는 형으로 보였다고 한다. 옛날부터 이 바우로 인해 나주에 처녀들이 바람이 나서 칠석마을로 시집 올려구 하여 나주 처녀가 칠석으로 시집와 사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농바우로 인해 나주의 처녀가 바람이 나지 않도록 나주사람들은 농바우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 하나 가까이 있는 칠석마을에서는 이를 못하게 하였다. 나주에서 칠석으로 시집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나주는 목사고을이고, 광산은 원님고을이니 나주가 지위가 높다하여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바우가 헐리고 난 뒤부터 나주에 처녀들이 바람이 나지 않고, 칠석마을로 시집오는 처녀도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 (3) 은행나무

공손수(公孫樹), 은행목(銀杏木), 행자목(杏子木)이라고도 하며 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 하여 압각수(鴨脚樹)라고도 한다. 은행은 은빛(銀) 나는 살구(杏) 씨 모양의 열매를 닮았다하여 은행이라 한다. 싹이 튼 지 20년 이상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씨를 심어 손자를 볼 나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른다. 은행열매는 다산을 상징한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심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의 나이가 1,100년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19그루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

다. 은행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병충해에 강해 오래 살며, 흔히 정자나무로 많이 심고 있다.

앞에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특히 방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틸산이 있어 잎을 책 속에 넣어두면 책에 좀이 먹지 않으며, 몇몇 플라보노이드계(系) 물질은 사람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나무목에 속하는 화석식물이 여러 곳에서 20여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나무는 그 몸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살충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갖가지 벌레의 유충,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딱정벌레도 굶어 죽을지언정 은행잎을 먹지는 않는다. 노랑게 물든 은행잎을 책갈피 사이에 끼워 두는 풍습은 은행잎을 사랑하는 가목한 마음에서 나왔겠지만, 이렇게 하면 책에 좀이 슬지 않는 뜻밖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농가에서 거름을 만들 때도 은행잎을 섞어 만들면 흙 속의 해로운 미생물이나 벌레들을 죽일 수 있다. 은행나무는 몸에 독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강건해서 병들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을뿐더러 공해에 대한 적응력이 대단히 강하다. 은행나무는 질소나 먼지에 잘 견디고 아황산가스, 납 성분을 정화하는 능력이 플라타너스보다 두 배나 높아 가로수로도 적합하다. 은행나무의 열매와 잎은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으로 쓴다. 은행잎은 예부터 고급 술안주나 신선로, 은행단자 등의 고급 요리에 쓰이는 등 좋은 식품으로 대접을 받아 왔다. 맛이 달고 성질이 찬 은행알을 구워 먹으면 맛도 있을 뿐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광주광역시 당산나무는 곳곳에 있다. 도시화로 무너져 가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곳곳한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다.

## 제3강

# 전라도 말의 힘

지 정 남  
배우, 방송인



전라도 말의 힘!

바뀌야 하나.?

오메 = 1타 7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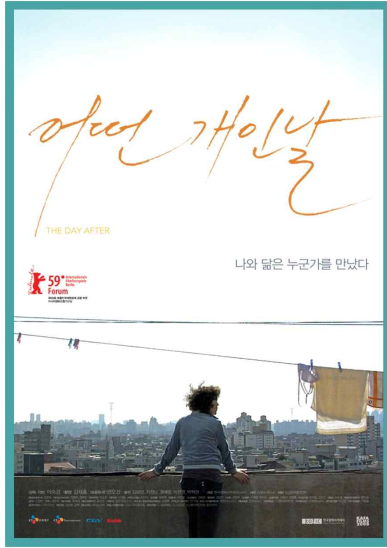
한 단어 다양한 쓰임

글안해??



우리 어매, 아배들의  
짚내 배긴 말씀





말을 노래처럼 하는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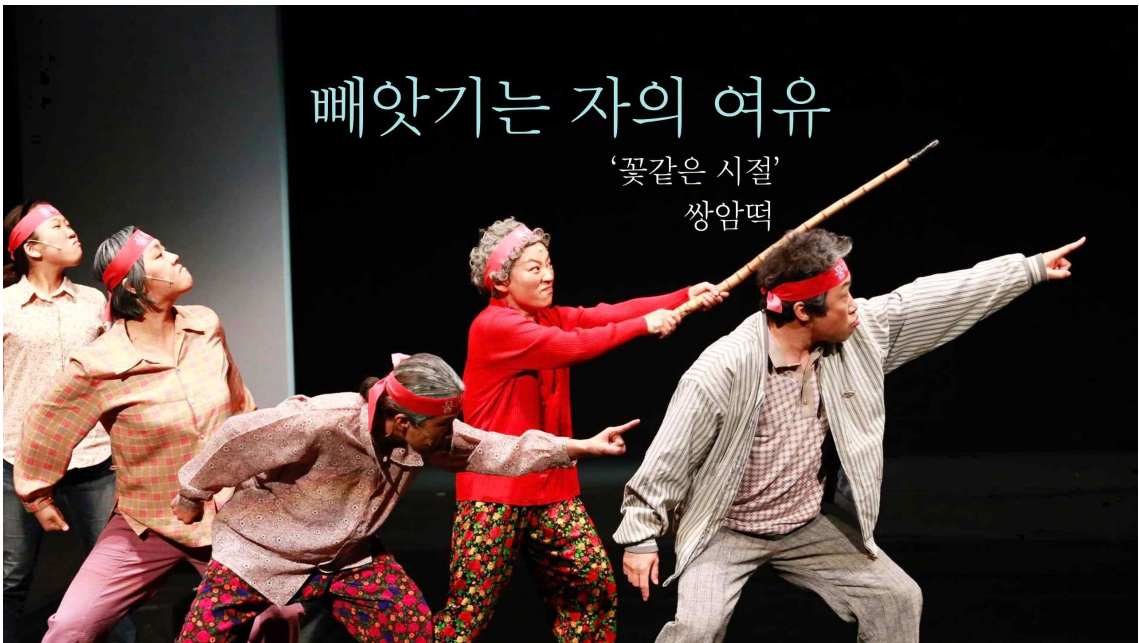
**판소리,**  
이야기가 가장 잘 전달되는 말



동초제의 시조, 동초 김연수



오기와 배짱의 소리꾼 성창순



제10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 대대손손 몸에 새겨진 역사가 흐르는 말



# 여봐말고 강 써도 써요

## 제4강

# 민족문화운동과 시대정신

윤 만 식

한국민족극협회 고문



# 민족문화운동과 시대정신

윤 만 식(한국민족극협회 고문)

## 들어가며

민족문화 운동과 시대정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이하 민예총)발족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성 싶다.

19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산재 되어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각 장르별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1988년 12월에 조직적으로 뭉쳐 법인화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된 단체가 사단법인 민예총이다.

민예총의 설립 목적에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 연대와 공동 실천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민중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헌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진보적 문화 운동 단체, 민중 문화 운동 단체 등 거의 유사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초창기 민예총 산하 장르별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몇 단체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회원이 가맹 되어 있는 문학 분과위원회부터 살펴보자.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유신체제로 전환하여 1973년 일본에 망명 중인 김대중씨를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시켜 납치, 현해탄에 수장 시킬려는 공작이 실패로 끝나자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여 4월에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합'(민청학련)회원 180여 명을 구속하고, 그즈음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조작하여 수십 명을 구속하고 8명을 사형선고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다음 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한 치욕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을 목도한 진보적 문학인들이 그해 11월에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를 발족한다 이 단체는 1987년 9월에 민족문학작가회의(족작)로 변경하고 2000년대에 와서는 민족을 빼자는 논란 끝에 2007년 12월에 한국작가회의로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진보적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70~80년대 가장 많은 저항운동을 펼친 김지하 이하 몇몇 작가들의 힘든 역사를 살펴보자.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부패한 권력층을 통렬하게 풍자한 '오적'을 발표하고 구속되었다가 그해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다음해 '시인' 6, 7월 합병호에 시론 '풍자냐 자살이냐'를 발표했다. 이 글은 김수영 시인에 대한 평론의 형식이지만 자신의 문학관과 역사관은 물론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지하는 '풍자냐 자살이냐'에서 김수영의 시 '누이야, 풍자 아니면 자살이다'를 패러디 해, 시인은 풍자와 자살이라는 대립에서 풍자를 선택함으로써 물신과의 투쟁에서 결국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김지하가 말하는 풍자는 물신으로 상징되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그의 당시 '오적'이 다섯 유형의 권력자들을 짐승에 비유해 통렬하게 비판한 것처럼 시인에게 풍자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었다. 김지하를 비롯한 1970년대 시인들 중에는 투옥과 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양성우의 '노예' 수첩 필화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잡지에 기고한 글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당시 '자유 실천 문인 협회' 소속 문인들이 양성우의 시편을 모아 시집 '겨울 공화국'을 출간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많은 문인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인이 고은과 '국토' 연작시를 쓴 조태일이었다.

미술 분과위원회는 80년 광주 5.18 민중항쟁에 자극을 받아 개인적으로 비판적 화업 작업을 하던 미술인들이 80년 10월에 '현실과 발언'(현발)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연극분과위원회는 마당극과 진보적 무대극을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있는 '한국 민족극 운동 협회'(현 한국 민족극 협회)가 1988년 12월에 서울 종로 피카디리극장에서 제1회 '민족극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발족하였다.그외에 사진 분과위원회, 굿 분과위원회, 건축 분과위원회, 춤 분과위원회, 영화 위원회, 등 10여 개 단체들로 기초 예술 분야 전 분야를 망라한 분과위원회가 가맹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 시. 도, 나아가 중소도시까지 지회, 지부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10여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가 노무현 정권 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시. 도 지자체에 지역 민예총 명칭으로 법인을 등록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민중문화 운동과 광주 그리고 5.18

광주에서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민중 문화 운동은 1978년 함평 고구마 사건이 아닌가 싶다. 사건의 내막은 전라도에는 물고구마는 해남, 밤고구마는 함평이라는 풍문이 나돌 정도로 함평 밤고구마가 전분이 많이 나오는 밤고구마의 주산지였다. 이에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농협에 위탁해 농민들에게 고구마를 많이 심으면 전량 대한제분에서 수매를 하기로 했다고 홍보하여 함평 농민들이 엄청난 양을 심었는데 수확 시기가 가까울 즈음에 대한제분인가 농협인가 누군가가 값싼 외국산을 수입해 버리면서 함평고구마의 전량 수매 약속을 못지키면서 고구마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함평 카톨릭 농민회가 광주 북동성당과 계림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당시 전남대 연극반, 탈춤반 대학생들이 고구마 포대를 뒤집어쓰고 당시 상황을 마당극으로 공연을 하여 엄청난 호응을 받고 결국 농협에서 전액 보상을 받아 농민이 승리한 사건이었다.

그 영향을 받아 1979년 겨울에 학내 문화 운동에만 머물러 활동하던 전대 탈춤반, 연극반, 국악반, 조대 탈춤반 등이 모여 사회 문화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극단체를 결성하여 광주 ywca 극회 '광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때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유신이 종말을 맞이한 시기였다. 이후 12.12 전두환과 하나회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뒤숭숭한 시기였다.

첫 작품으로 당시 농수산부에서 전 해부터 돼지사육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를 많이 기르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출하 시기에 외국에서 백돼지를 수입한 바람에 전국 농촌에 집집마다 돼지가 우글거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마당극 '돼지풀이'를 광주 ymca 체육관 무진관에서 성공리에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돼지를 집단으로 사육한 현장인 강진, 무안 등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하였다. 이어서 다음 작품으로 분단 문제를 다루는 황석영 원작 '한씨 연대기'를 공연하기로 하고 연습 중 5.18 민중 항쟁을 겪게 된다. 이에 광대 회원 전원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누구는 도청 항쟁 지도부로 가고 누구는 ywca에서 투사회보 제작, 대자보 작성, 현수막 제작, 동네명 깃발 등을 제작하고 누구는 도청 분수대 위 쫓기대회 사회, 성명서 낭독 등 문화선전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패배로 끝난 광주 5월 항쟁의 문화선전대 광대 회원들은 투옥되고, 도피하여 뿔뿔히 흩어 졌지만 남은 회원들과 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모여 이듬해에 또다시 공연을 하게된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을 각색한 '호랑이 놀이'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전경

들의 보호(?)아래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된다. 내용은 미군의 승인하에 군이 이동하여 광주 학살이 일어난 것은 결국 원죄는 미국에 있다는 주제를 풍자하여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광대는 해산된다.

광주 5.18 민중항쟁이 비참하게 패배로 끝난 후 광주지역의 민중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 활동가들에게는 잔인한 세월이었다. 민족사에서 미증유의 광주 만행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에 몸부림쳐야 했다. 동시에 참혹한 세월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책무 또한 이들에게 주어졌다. 학살과 저항 그리고 또다시 참혹한 학살을 경험한 민중 문예 활동가들은 광주의 모든 저항 세력들이 죽음, 사전구속, 도피 등으로 전멸되다 싶이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공연행위로, 예술행위로 진실을 알리고자 조직한 것이 1982년 봄에 놀이패 '신명'의 창단 배경이다. 이듬해에는 극단 토박이가 탄생하고, 시각예술에는 광주전남 미술인공동체(광미공), 민중미술운동연합(민미련), 문학에는 작가회의 광주, 전남지부, 등 장르별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8 항쟁을 겪기 이전의 문화운동과 예술활동이 선언적, 계몽적 성격이었다면 항쟁 이후에는 보다 선명한 운동의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다. 항쟁 기간 동안 광주 민중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정신과 공동체의 경험은 1970년대 민족 문화운동 과정에서 단순히 피지배자로서의 '민중'이라는 감성적 해석에서 '사회 변혁과 역사를 주도하는 민중'으로 재해석되었고, 당연히 문화운동과 의식적인 예술 활동의 소재와 주제, 주체가 민중으로 집중되었다.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들이 당한 광주에서의 참혹한 희생이 곧 주제이면서 곧 주체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 운동도 예술 활동도 민중이 직접 참여하여 조직화 되었다.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문화운동과 예술 창작이 1980년 5월의 광주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초반을 거친 민족 문화 운동과 민중 예술활동가들은 1984년이후 새로운 각성을 통해 민중 문화 운동을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그 노선과 목표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이즈음에 조직된 단체가 '민중 문화 연구회'이다. 오늘날의 문화예술계 시민운동 단체인 셈이다. 이 단체의 창간 기관지 '광주문화'에 게재한 '민중문화 연구회 선언문'에서 '5월을 온몸으로 체험한 우리들은 광주 5월의 그 함성이 바로 민족 통일을 향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싸움이였다는 것을 5년이나 지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의 5월은 이 땅 한반도의 제 모순을 극복하고 민중 해방과 민족 통일의 거대한 흐름속에 몸을 던지려 한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화적 노력은 통일의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세상, 대동의 세상을 향하여 가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민중문화운동이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변혁운동의 총체적 집합의 중심에 설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복무할 것을 제안했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놀이패 '신명'에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80년대 중반에 몇편 공연한 바 있다. 신동엽 시인의 詩劇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은 전쟁 중 부상을 당하고 완충지대에서 만난 북한군 여자와 남한군 남자가 동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가슴 아픈 줄거리이고, 다음은 선우 휘의 '단독강화'로 해방 후 판문점에서 미군과 소련군과의 회의에 의해 분단된 배경을 그리는 무대극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송기숙 교수의 '당제'로 6.25 전쟁 중 월북인지 납북인지 모를 아들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을이 수몰되는 과정에서 집터가 없어지니 수몰된 마을의 입구에 아들을 기다리는 팻말을 세워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공연을 했었다.

## 마무리

이러한 방식으로 각 장르별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 하던 중 1987년 6월 향쟁이 발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문화패들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자고 논의 끝에 민중 문화 연구회를 확대 재편하기로 하고 '광주. 전남 민중문화 운동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 내에 10여개 단체가 가맹되어 조직을 이끌어 갔다. 그렇게 7년정도 운영하다가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혀 드디어 1994년에 사단법인 한국 민예총 광주광역시 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그러다가 전자에 지적한 것 처럼 한국 민예총 본부에 문제가 발송하여 2013년에 사단법인 광주 민예총을 광주 광역시에 등록을 하고 현재는 가맹 회원 단체가 15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과 광주지역의 진보적이고 민족적,민중적 양식과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과 활동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타 장르나 부족한 부분은 강연시에 보충하고자 한다.

2022. 11

문흥골에서 윤만식(문화학 박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2 생통강좌(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2. 11. 01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2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